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7

| | | | |
|--------|---------------|--|-------------|
| 주 제: | “ 우리의 순교 ” |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 | 2009년 7월 5일 |
| 복음 묵상: | [마태 10,17-22] | [2역대 24,18-22] | [로마 5,1-5]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입니다. 15 세였던 1836년 마카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1845년 1월에 귀국한 성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선을 타고 황해를 건너 중국 상해로 향하였습니다. 선교사를 이 땅에 모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845년 8월 17일 사제품을 받고 고국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다시 선교사를 영입하려고 중국 배에 서신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순위도 부근에서 관헌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1846년 9월 16일에 순교하였습니다. 1925년 7월 5일 비오 11세 교황은 성인을 비롯한 79위 한국 순교자를 복자의 반열에 올렸고,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의 시성식을 거행하면서 성인을 정하상 바오로 성인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찍이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명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박해를 각오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도록 하는 일, 하느님을 민족들에게 증언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러할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반드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그 훌륭한 모범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일함 등은 박해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가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 6/18-7/6 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모친 방문을 위하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은 6/28 은 미사를 마치고 San Diego 로 떠나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고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 잘 마치고 편안히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 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 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두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예정.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음 [마태 10,17-22]

너희를 법정에 넘겨 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 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 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분 명상

♡ " 물의 3 가지 가르침 " ♡

「 좋은글 중에서 」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의 진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첫째,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순응한다,

둘째,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골이 진 곳을 따라 흐르며 벼 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위로한다, 그러나 물이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넘어뜨린다,

셋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것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누가 이처럼 낮은 곳에 있고 싶어하랴 만,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다

이토록 유연한 것이
이토록 강하게 용트림하는 것이
이토록 낮은 곳으로 자꾸만 내려가는가?
이것이 순교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지...

물의 교훈 중의 한 가지
이처럼 자기의 명성이 자기의 진실보다
더 빛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의 말씀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2티모 1,7).”